



세일즈포스와 엔트로픽 ‘클로드포스’ 발표, SaaS AI 잠식 우려 완화

Tech&Stock Weekly | 2026.08.28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세일즈포스와 엔트로픽 ‘클로드포스’ 발표, SaaS AI 잠식 우려 완화

- 세일즈포스는 FY27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22% 급등. 하반기 매출 자체 성장 재가속 전망이 계약지표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엔트로픽과 파트너십을 통해 ‘클로드포스’ 공동 출시 발표는 그 동안 주가를 높여온 이른바 ‘SaaS Apocalypse’ 우려를 크게 완화시키면서 다른 주요 SaaS 종목들도 주가 반등
- cRPO (12개월내 매출로 인식되는 계약 잔고)가 14% YoY 증가, 가이던스를 1ppt 상회하고 전분기 13%에서 가속. 3분기 CRPO 가이던스도 약 14%를 제시하며 성장 유지 전망. 순신규 AOV(연환산 계약가치) 성장률이 4년만에 최고. 2분기 매출 성장이 인수 효과를 제외한 자체성장 기준으로는 약 6%대로 아직 낮지만 향후 매출로 전환될 계약 추세가 개선. 즉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점인 ‘하반기 자체성장 재가속’여부가 선행지표로 확인된 점이 긍정적
- 이번 엔트로픽과의 ‘클로드포스’ 발표는 AI 프런티어 모델과 SaaS 사업자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제공하여 서로 필요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판단
- 클로드포스는 클로드의 추론 성능과 인터페이스,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결합한 서비스. 사용자는 클로드 화면에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를 불러와 업무 수행 가능.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는 AI 네이티브 UI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기업의 보유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등에 대한 부족한 점을 해결 할 수 있음. 세일즈포스는 클로드 뿐만 아니라 챗GPT, Teams 등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세일즈포스 데이터와 업무 로직을 호출할 수 있게 하는 헤드리스(Headless) 전략을 추진. AI가 기존 SaaS 화면을 대체하더라도 그 아래에서 기업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남겠다는 전략이며 관련 기능을 프리미엄 요금제 업그레이드와 연결해서 수익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임
- 세일즈,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CRM 주요 부문은 AI스타트업들과의 경쟁 심화 노출도가 높고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요금제 채택 속도와 향후 실제 수익화 추이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번 엔트로픽과의 공동 서비스 출시는 SaaS 기업들과 AI 랩에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WinWin 전략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 모든 SaaS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 보다는 각 부문에서 기업 고객 기반이 넓어 AI에게 유통과 데이터 계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임

엔비디아(NVDA.US): GPU를 넘어 AI 인프라의 자본까지 장악

- FY27 2분기 매출은 962.2억달러(예상치 922.7억달러)로 예상치를 4.3% 상회했으며 QoQ +17.9%, YoY +105.9% 증가. 데이터센터 매출은 890억달러로 QoQ +18%, YoY +117% 증가했으며 GAAP, non-GAAP 매출총이익률은 모두 75%
- Hyperscale 매출은 490억달러로 QoQ +13% 증가. 주요 고객의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2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상위 5개 Hyperscaler의 Capex는 2026년 약 8,000억달러, 2027년 1.3조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엔비디아 컴퓨팅 가동이 고객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직접 연결되면서 신규 GPU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지속
- ACIE 매출은 400억달러로 QoQ +25%, YoY +138% 증가. 기업, AI 신생기업, 주권 고객의 수요와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보완하려는 Hyperscaler의 네오클라우드 용량 구매가 성장을 견인. NVIDIA DSX 기반 네오클라우드의 총설치용량은 2025년 말 약 3GW에서 2026년 말 8GW로 확대될 전망이며, 비Hyperscaler 시장이 데이터센터 사업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FY27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080억달러±2%로 중간값 기준 예상치 1,041.9억달러를 3.7% 상회. 중간값 기준 QoQ +12.2%, YoY 약 +89% 성장하는 수준이며 Vera Rubin이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전망. 데이터센터 내 ACIE가 성장을 주도하고 Hyperscale은 Vera Rubin 공급이 확대되는 4분기부터 다시 가속될 것으로 예상
- FY28 매출은 YoY 약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 고객이 제시한 수요는 YoY +100% 이상이지만 공급능력으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70%로 제시한 것이며, 공급 병목은 적어도 FY28 말까지 지속될 전망. 제약이 없다면 성장률은 70%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설명

세일즈포스와 엔트로픽 '클로드포스' 공개, SaaS AI 잠식 우려 완화

- 세일즈포스는 FY27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22% 급등. 하반기 매출 자체 성장 재가속 전망이 계약지표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엔트로픽과 파트너십을 통해 '클로드포스' 공동 출시 발표는 그 동안 주가를 높여온 이른바 'SaaS Apocalypse' 우려를 크게 완화시키면서 다른 주요 SaaS 종목들도 주가 반등
- CRPO (12개월내 매출로 인식되는 계약 잔고)가 14% YoY 증가, 가이던스를 1ppt 상회하고 전분기 13%에서 가속. 3분기 CRPO 가이던스도 약 14%를 제시하며 성장 유지 전망. 순신규 AOV(연환산 계약가치) 성장률이 4년만에 최고. 2분기 매출 성장이 인수 효과를 제외한 자체성장 기준으로는 약 6%대로 아직 낮지만 향후 매출로 전환될 계약 추세가 개선. 즉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점인 '하반기 자체성장 재가속'여부가 선행지표로 확인된 점이 긍정적
- 이번 엔트로픽과의 '클로드포스' 발표는 AI 프런티어 모델과 SaaS 사업자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제공하여 서로 필요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판단
- 클로드포스는 클로드의 추론 성능과 인터페이스,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결합한 서비스. 사용자는 클로드 화면에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를 불러와 업무 수행 가능.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는 AI 네이티브 UI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기업의 보유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등에 대한 부족한 점을 해결 할 수 있음. 세일즈포스는 클로드 뿐만 아니라 챗GPT, Teams 등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세일즈포스 데이터와 업무 로직을 호출할 수 있게 하는 헤드리스(Headless) 전략을 추진. AI가 기존 SaaS 화면을 대체하더라도 그 아래에서 기업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남겠다는 전략이며 관련 기능을 프리미엄 요금제 업그레이드와 연결해서 수익화 속도를 높일것다는 전략임
- 세일즈,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CRM 주요 부문은 AI스타트업들과의 경쟁 심화 노출도가 높고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요금제 채택 속도와 향후 실제 수익화 추이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번 엔트로픽과의 공동 서비스 출시는 SaaS 기업들과 AI 랩에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WinWin 전략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 모든 SaaS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 보다는 각 부문에서 기업 고객 기반이 넓어 AI에게 유통과 데이터 계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임

엔비디아(NVDA.US): GPU를 넘어 AI 인프라의 자본까지 장악

- FY27 2분기 매출은 962.2억달러(예상치 922.7억달러)로 예상치를 4.3% 상회했으며 QoQ +17.9%, YoY +105.9% 증가. 데이터센터 매출은 890억달러로 QoQ +18%, YoY +117% 증가했으며 GAAP, non-GAAP 매출총이익률은 모두 75%
- Hyperscale 매출은 490억달러로 QoQ +13% 증가. 주요 고객의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2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상위 5개 Hyperscaler의 Capex는 2026년 약 8,000억달러, 2027년 1.3조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엔비디아 컴퓨팅 가동이 고객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직접 연결되면서 신규 GPU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지속
- ACIE 매출은 400억달러로 QoQ +25%, YoY +138% 증가. 기업, AI 신생기업, 주권 고객의 수요와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보완하려는 Hyperscaler의 네오클라우드 용량 구매가 성장을 견인. NVIDIA DSX 기반 네오클라우드의 총설치용량은 2025년 말 약 3GW에서 2026년 말 8GW로 확대될 전망이며, 비Hyperscaler 시장이 데이터센터 사업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FY27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080억달러±2%로 중간값 기준 예상치 1,041.9억달러를 3.7% 상회. 중간값 기준 QoQ +12.2%, YoY 약 +89% 성장하는 수준이며 Vera Rubin이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전망. 데이터센터 내 ACIE가 성장을 주도하고 Hyperscale은 Vera Rubin 공급이 확대되는 4분기부터 다시 가속될 것으로 예상
- FY28 매출은 YoY 약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 고객이 제시한 수요는 YoY +100% 이상이지만 공급능력으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70%로 제시한 것이며, 공급 병목은 적어도 FY28 말까지 지속될 전망. 제약이 없다면 성장률은 70%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설명
- 메모리 가격 상승 폭이 기존 예상을 크게 초과하면서 매출총이익률 전망을 하향. 3분기 매출총이익률은 74%±0.5%p, 4분기에는 71~72%로 저점을 기록한 뒤 제품 가격 인상이 반영되는 FY28에는 72~73%로 회복될 전망. 메모리 공급 부족은 AI 수요 급증에서 발생한 현상이므로 마진에는 부정적이지만 NVIDIA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수요와 근원이 같다고 강조
- GW당 매출 기회는 Hopper 180억달러에서 Blackwell 250억달러, Vera Rubin 400억달러로 상승. Vera CPU, Rubin GPU, NVLink, InfiniBand-Ethernet, Groq LPU까지 판매 범위가 확대된 결과. 데이터센터 전체 투자액도 약 5년 전 GW당 300억달러에서 현재 600억달러까지 상승했으며 향후 Vera Rubin Ultra 이후에는 GW당 매출 기회가 400억달러를 추가로 넘어설 전망
- Vera Rubin은 8월부터 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모든 주요 Hyperscaler, AI Cloud, System OEM의 구매 주문을 이미 확보. Grace Blackwell Ultra 대비 MW당 처리량은 30배 높고 토큰당 비용은 35분의 1 수준이며 NVIDIA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중산이 예상. 세대별 성능과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고객이 최대한 빠르게 차세대 제품으로 전환하는 구조
- 네오클라우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용량 일부에 Take-or-Pay 방식의 최소 매출 보장을 제공하고, 보장 수준을 초과한 임대 매출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를 도입. NVIDIA가 직접 대출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자본이 각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해 투자. NVIDIA는 하드웨어 판매와 반복적인 임대 매출 공유에서 두 번 수익을 얻으며, 중장기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추가 매출원이 될

가능성

- 재무상태표를 활용해 지원하는 AI 연구소 수요는 내년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할 전망. 순환 금융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의 수요와 성장성, NVIDIA 생태계 기여, 지분투자 수익을 함께 고려하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반박. 엔비디아 컴퓨팅은 다른 고객에게 재배치할 수 있어 계약 상대방 문제가 발생해도 자산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AI 보안 수요, 내러티브에서 숫자로

- 2QFY27 실적은 '미토스 모멘트' 이후 부각된 AI 보안 수요 상승이 내러티브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을 통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 핵심 지표인 순신규 ARR이 3.3억 달러(+51% yoy)로 가이던스 상회폭이 16%가 넘었으며, 성장 측면에서는 23ppt 상회. 더욱 고무적인 수치는 FY27년 순신규 ARR 가이던스를 기존 27.7% 성장에서 34%로 6.3ppt 상향 조정. FY27년 첫 가이던스 제시 후 2개 분기 만에 11.5ppt를 올렸으며, 가이던스 산정 패턴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음. 주목하는 점은 3분기 계약 파이프라인이 사상 최대 규모. AI 가동에 있어서 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상반기에 높아지기 시작했다면 하반기에는 파이프라인의 계약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FY27년 가이던스 대비 업사이드 여전히 높다고 판단
- 1) 신제품인 AIDR(AI 감지 & 대응) ARR이 1분기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 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보안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AIDR가 기존 EDR에 포함된 기능이 아니라 별도 유료 모듈로서 실적 기여가 빠르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 2) 주력 보안 분야 전체가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음.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차세대 SIEM이 고성장을 지속, 합산 ARR이 21억 달러로 YoY 39% 증가. 3) 계약 내에서 여러 제품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추가할 수 있는 Flex 모델이 성장 가속을 이끌고 있음. Flex 기반 ARR이 22.9억 달러를 상회, 101% 성장. Flex 모델은 보안 시장 내에서 통합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단. 4) 엔드포인트 보안 사업이 성숙 시장이라는 인식과 달리 4개 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를 이어감.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절반은 여전히 레거시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AI 보안을 위해서 레거시에서 차세대 EDR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 AI 에이전트 가동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성능과 자율성이 계속 높아진다면 보안 수요 역시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람 1명당 최대 90개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시장 추정치를 감안하면 AIDR 시장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EDR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I랩의 자체 보안 솔루션 출시 가능성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리스크 요인. 그러나 보안은 기술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장기간 축적된 공격, 위협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비롯한 차별적인 보안 데이터 자산 보유가 CRWD와 같은 기존 보안 우량 사업자의 강력한 경쟁력 요인으로 판단. 주가는 12M FWD P/CF 84배로 과거 추이(2년 평균 68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졌으나 소수의 사이버보안 대표 종목들에 대한 리레이팅 구간으로 판단 1) CY26년보다 CY27년에 더욱 본격화될 AI 에이전트 보안 수요, 2) AI 보안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부문에 대한 기업의 지출 비중 증가, 3) 소수 통합 사업자에 대한 프리미엄 확대를 고려하면 사이버보안 Top pick 종목으로서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

세일즈포스(CRM.US): FY2Q27 실적 발표

- 2QFY27 매출 113.5억달러(+11% YoY), 구독 매출 108.2억달러(+12%)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 소폭 상회. cRPO 335억달러로 고정 환율 기준 +14% 성장, 가이던스 1%p 상회, 순신규 연환산 계약가치(Net New AOV) 성장률도 4년래 최고 수준 기록
- Agentforce ARR 15억달러, AI-데이터 ARR 40억 달러에 근접, AI 에이전트 업무 처리량은 32억건으로 전분기 대비 97% 증가. 유료 운영 고객도 전분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Agentforce 신규 계약규모 절반이 기존 고객의 Flex Credit 재충전에서 발생. 시범 도입을 넘어 실제 사용 및 재구매 단계로 전환 가속화 긍정적
- 3Q 매출 가이던스 114.2~115.0억 달러로 컨센서스 소폭 상회, cRPO 성장률도 14% 제시, 2분기 수준 유지 전망. FY27 매출 가이던스는 461~464억달러로 상향, 이 중 자체 사업 성장에 따른 상향분은 1억 달러, M&A 효과 2억 달러.
- 강한 영업 파이프라인과 낮은 이탈률, 상반기 순신규 연환산 계약가치 개선을 근거로 하반기 자체 사업 매출 성장 재가속 전망 유지. 다만 라이선스 매출 약세와 통합·분석 부문 변동성 여전히 지속되는 점은 추가 확인 필요
- Anthropic과 파트너십을 통해 '클라우드포스' 공개. Claude의 추론 성능 및 인터페이스,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 결합한 서비스. 9월 Dreamforce에서 정식 출시 예정이며, 프리미엄 요금제 통해서만 판매할 계획
- 세일즈포스는 Claude, Slack, ChatGPT, Teams 등 외부 사용자 화면에서도 세일즈포스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 '헤드리스(Headless) 전략' 확대 중. 현재 Sales, Service 부문 고객 중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며 업그레이드 시 기존 대비 60~80%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AI 기능 확대가 기존 고객 기반의 추가 매출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강조
- 이번 실적은 AI가 기존 CRM 사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고, cRPO-순신규 연환산 계약가치-Agentforce 실제 사용량 등 선행지표 개선을 통해 하반기 성장 재가속 기대를 높인 분기로 평가. 다만 AI 수익화가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입증된 단계라기보다는 초기 성과가 실적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200억달러 Groq 거래 8개월 만에 추론 랙 양산

- 엔비디아가 Groq 기술을 적용한 Groq 3 LPX 랙의 본격 양산에 돌입. 2026년 말 이전 Nebius의 Token Factory에 설치돼 실제 고객 워크로드 가동 예정. Nebius는 기존 Token Factory의 API와 운영 환경을 유지한 채 LPX를 제공할 계획. 고객이 새로운 SDK나 별도 서비스 사업자로 이전하지 않고 모델 선택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 Groq도 초기 도입 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며 Dell Technologies와 함께 GroqCloud에 LPX 및 Vera Rubin NVL72를 구축할 예정
- 2025년 12월 거래 규모는 약 200억달러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다만 Groq 법인 전체를 인수한 거래가 아니라 비독점 기술 라이선스와 핵심 경영진·엔지니어 영입으로 구성. Groq 창업자 조너선 로스와 주요 인력은 엔비디아에 합류. Groq는 독립 법인과 GroqCloud 사업을 계속 유지
- Groq 3 LPX는 AI 모델 훈련보다 추론의 토큰 생성 단계에 특화된 가속기. Agentic AI가 수백~수천회의 순차적인 추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응답 지연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 각 LPX 랙에는 Groq 3 LPU 256개 탑재. 총 128GB 온칩 SRAM과 초당 640TB의 칩 간 연결 대역폭을 갖추고 액체냉각 방식 적용
- Groq 3 LPX가 Vera Rubin NVL72를 대체하는 구조는 아님. Rubin GPU가 긴 입력 처리와 Attention 연산을 담당하고 LPU가 지연시간에 민감한 토큰 생성과 FFN(토큰 정보를 변환하는 신경망 연산) 연산을 가속하는 이기종 컴퓨팅 구조
- Gemma 4 31B 모델과 10만토큰 입력 조건에서 사용자당 초당 3,400개 이상의 출력토큰 기록. 동일 조건에서 가장 빠른 기존 공개 서비스보다 약 4배 높은 생성 속도. 2조개 매개변수 모델과 장문맥 환경에서는 Vera Rubin NVL72와 LPX 조합이 GB200 NVL72 대비 MW당 추론 처리량을 최대 35배 높일 수 있다는 내부 추정. 특정 모델과 지연시간 조건을 전제로 한 수치여서 전체 추론 워크로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능은 아님

브로드컴(AVGO.US): 최대 800억달러 AI 칩 금융 추진

- 브로드컴이 AI 칩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700억~800억달러 규모의 부채 조달 논의 중. 앤스로픽을 비롯한 AI 기업의 대규모 컴퓨트 확보가 주요 목적. 이번 조달은 브로드컴이 회사채를 직접 발행해 자체 부채를 800억달러 늘리는 구조가 아님. 별도 SPV(특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담는 특수목적법인)가 자금을 빌려 AI 칩과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식. 약 450억달러의 선순위 부채와 350억달러의 후순위 부채로 구성하는 방안 논의 중. 각 조달 규모와 전체 금액은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
- 아폴로와 블랙스톤을 포함한 대형 자산운용사 및 금융기관이 자금 제공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 브로드컴은 일부 선순위 부채나 칩의 잔존가치를 보증해 조달금리를 낮추는 역할 예상. SPV는 브로드컴이 설계에 참여한 커스텀 AI 칩과 네트워킹 장비를 매입. 확보한 컴퓨트 인프라를 앤스로픽 등 AI 연구소에 장기간 임대하고 임대료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 앤스로픽은 막대한 초기 현금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컴퓨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 브로드컴은 고객의 자금 제약을 완화해 칩 판매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
- 브로드컴과 아폴로, 블랙스톤은 지난 6월에도 350억달러 규모의 AI XPV Platform을 출범. 초기 자금은 앤스로픽의 1GW 이상 컴퓨트 증설에 투입되며 2026년 중반부터 가동 시작. AI XPV Platform의 장기 목표는 2028년까지 주요 AI 연구소에 20GW 이상의 컴퓨트 공급. 이번 700억~800억달러 조달은 기존 플랫폼을 확대하는 후속 금융에 해당
- 브로드컴이 단순한 AI 칩 공급자에서 칩 구매자금까지 연결하는 공급자 금융 사업자로 역할 확대 중. 엔비디아 역시 자산운용사와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 칩 업체 간 경쟁이 성능과 공급능력에서 자본조달 능력까지 확장되는 흐름

앤스로픽(비상장): Google TPU 초기 7세대 책임자 영입

- 앤스로픽이 구글의 커스텀 반도체 사업을 설립한 아미르 살렉을 영입. Claude를 위한 자체 AI 반도체 개발 조직 구축의 핵심 인사. 살렉은 앤스로픽 컴퓨트팀에 합류해 컴퓨트 책임자 제임스 브래드버리에게 보고할 예정. 구글에서 TPU 사업을 이끌며 초기 7세대 제품의 데이터센터 공급을 담당했던 인물
- 살렉은 구글에 합류하기 전 엔비디아에서 약 8년간 SoC 설계 조직을 운영. 구글에서는 2013년부터 자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용 TPU 개발을 주도. 2022년 구글을 떠난 뒤 사모펀드 Cerberus Capital Management에서 반도체와 딥테크 투자를 담당
- 앤스로픽은 이달 초 자체 반도체 설계팀 신설을 공식화. 자체 칩 도입 목적은 엔비디아 의존도 완화와 컴퓨트 공급 부족 대응. Claude의 실제 연산구조에 맞춰 칩을 설계하면 범용 CPU 대비 토큰당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 다만 앤스로픽은 기존 멀티칩 전략을 계속 유지할 계획. AWS Trainium, Google TPU, 엔비디아 GPU와 AMD 가속기가 향후에도 주요 컴퓨트 기반으로 사용될 예정. 앤스로픽은 구글 TPU 최대 100만개와 1GW 이상의 컴퓨트를 확보하는 계약을 진행 중. 2027년부터는 구글 계열 AI 프로세서를 활용한 약 3.5GW의 추가 컴퓨트 공급도 예정된 상태. 따라서 자체 칩은 기존 Google TPU와 AWS Trainium 물량을 즉시 대체하기보다 추가적인 전용 연산 계층으로 도입될 가능성. 공급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특정 Claude 워크로드를 자체 칩으로 분산하는 방식
- 훈련용인지 추론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칩 용도는 아직 미공개. 설계 구조와 메모리 사양, 파운드리, 양산 파트너, 테이프아웃 및 상용화 일정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

오픈AI(비상장): 오픈AI Jalapeno, 엔비디아 Blackwell 대비 전성비 1.5~1.9배

- 오픈AI가 Hot Chips에서 자체 추론용 ASIC Jalapeno의 첫 벤치마크 결과를 공개.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칩으로 대규모 LLM 추론과 Agentic AI에 최적화. SemiAnalysis의 InferenceX를 활용해 GPT-OSS 120B, DeepSeek R1 670B, Kimi K2.5 1T 모델을 시험. 엔비디아 GB200-GB300 기반 시스템의 기존 최고 결과와 비교. Jalapeno는 최대 처리량 구간에서 전력당 AI 연산량이 비교 시스템보다 1.5~1.9배 높은 성능. 전체 요청 처리시간은 1.7~3.6배 짧은 결과. 저지연이 중요한 대화형 추론에서는 기존 시스템보다 2.1~4.1배 높은 성능 기록. Agentic AI가 수십~수천번의 순차적인 모델 호출을 수행할 때 누적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 가장 큰 Kimi K2.5 1T 모델에서는 전력당 최대 처리량이 약 1.5배 높고 전체 지연시간은 3.4배 짧은 수준. 작은 모델 하나에만 최적화된 칩이 아니라 1조개 매개변수 모델까지 확장 가능
- Jalapeno 칩 하나는 MXFP4 기준 13.4PFLOPS의 연산성능과 216GiB HBM4 탑재.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15.4TB이며 정격소비전력은 700W. 실제 벤치마크 과정에서 측정된 지속소비전력은 550W 이하. 비교 대상인 엔비디아 GB200과 GB300의 공개 정격소비전력은 각각 약 1,200W와 1,400W 수준. 128개 칩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약 1.7EFLOPS의 MXFP4 연산성능과 27.6TiB의 HBM4 제공. 합산 HBM 대역폭은 초당 약 2PB에 달하는 구조
- Jalapeno는 프롬프트를 읽는 Prefill과 토큰을 생성하는 Decode를 하나의 칩에서 처리하도록 설계. 연산과 메모리, 네트워크 자원을 단계별로 다르게 활성화해 불필요한 대기전력과 데이터 이동을 축소. KV cache를 칩과 가까운 위치에 유지하는 구조. 서로 다른 전용 가속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방식
- 브로드컴은 ASIC 구현과 네트워크연결 기술을 담당. Celestica는 기판과 랙, 시스템 통합 및 대량생산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 오픈AI의 AI 모델도 Jalapeno 설계와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활용. 초기 설계부터 Tape-out(반도체 설계를 확정해 생산공정으로 넘기는 단계)까지 약 9개월 소요. 새로운 모델을 Jalapeno에서 구동하기 위한 연산 프로그램도 AI로 최적화. 기존 전문가 작성 코드보다 1.5~1.8배 높은 성능을 기록했고 세 개 공개 모델을 약 두 달 만에 최적화
- 다만 이번 비교는 공개 벤치마크를 사용했지만 시험과 결과 공개의 주체는 오픈AI. 전력당 성능도 실제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이 아니라 각 가속기의 공개 정격전력을 기준으로 환산. CPU와 네트워크, 냉각, 랙 전력 및 칩 가격까지 포함한 전체 TCO는 미공개. 엔비디아의 차세대 Vera Rubin과 Groq 3 LPX도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우주/로봇

알파벳(GOOG.LUS): 웨이모, 자체 AI 칩으로 로보택시 원가 절감과 대규모 증설 기반 강화

-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가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탑재되는 자체 5나노 ASIC을 공개. 13개의 고해상도 카메라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며, 저조도 영상의 노이즈 제거와 센서 정보 결합을 담당. 센서 입력부터 차량 동작까지의 지연을 줄여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구조
- 칩의 AI 연산 성능은 1,000 TOPS(초당 1,000조 회 연산) 이상. 다만 전처리와 일부 AI 모델에 집중된 수치이므로 엔비디아의 전체 자율주행 플랫폼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적
- 웨이모의 차량용 연산 성능은 최근 8년간 약 20배 증가. 두 개의 독립된 연산 시스템을 병렬로 구성해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쪽이 주행을 이어받는 이중화 설계. 자체 칩은 엔비디아와 AMD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CPU·GPU·가속기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형 시스템. 마이크론, 엔비디아, 삼성전자, 샌디스크, 소시오넥스트, TSMC 등이 공급망에 포함됐으나 업체별 역할과 물량은 미공개
- 해당 시스템은 웨이모의 차세대 로보택시 오하이(Ojai, 지커와 협력 개발)에 적용. 오하이는 로스앤젤레스·피닉스·샌프란시스코에서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

스페이스X(SPCX.US): 루이지애나에 1,000억달러 제2 스타베이스 건설

- 스페이스X가 루이지애나주 버밀리언 패리시의 옛 엑스모빌 부지에 1,000억달러 규모 우주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 부지 면적은 약 506제곱킬로미터로 맨해튼의 8배 이상이며, 5개 발사단지와 총 10개 발사대 구축 목표. 2027년 착공과 이르면 2029년 첫 스타십 발사가 목표이나, 주정부가 제시한 초기 가동 시점은 2030년. 1,000억달러는 집행 일정이 확정된 단기 투자액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최종 완공 기준 계획
- 신규 기지는 자체 메탄연료 생산, 발전설비, 심해 항만, 우주선 정비시설과 공항까지 갖춘 자급형 우주기지 구조. 로켓 생산은 텍사스 기지가 담당하고, 루이지애나 기지는 해상으로 운송받은 스타십의 정비·연료충전·발사를 담당할 계획. 풍부한 천연가스와 멕시코만 방향 발사경로가 입지 선정의 핵심. 특히 남쪽으로 발사하면 태양광 확보가 유리한 태양동기궤도에 접근할 수 있어 우주 인공지능 위성 배치에 적합한 입지. 최종적으로 연간 수천 회의 스타십 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 스타링크 증설뿐 아니라 최대 100만 기의 인공지능 연산 위성과 우주 데이터센터, 달·화성 탐사까지 염두에 둔 발사 인프라 투자

스타클라우드(비상장): 2억5,000만달러 추가 조달

- 지난 3월 조달한 1억7,000만달러에 추가된 시리즈A 증액 투자로, 기업가치는 11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상승. 창업 이후 누적 조달액은 4억5,000만달러. 사모 펀드인 맨해튼 웨스트가 투자를 주도했으며 엔비디아와 시스코도 신규 투자자로 참여. 조달금은 위성 생산시설 확장, 엔비디아와의 우주용 반도체 공동개발, 향후 발사 물량 확보에 사용될 예정. 워싱턴주에 약 9,300제곱미터 규모 공장을 구축해 대형 데이터센터 위성 스타클라우드-3 생산을 준비 중
- 스타클라우드-3는 2025년 엔비디아 H100을 궤도에 올려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시험한 이력. 향후 방사선과 극한 온도에 견디도록 설계된 스페이스-1 베라 루빈 모듈을 2028년 말 발사하는 것이 목표. 2027년에는 각각 8킬로와트 연산능력을 갖춘 스타클라우드-2 위성 2기를 먼저 발사할 계획. 아직 일반 데이터센터와 비교하기 어려운 소규모 실증 단계이며, 미국 정부기관 대상 궤도 내 추론 작업 수행이 목적
- 장기 목표는 최대 8만8,000기의 위성과 20기가와트 규모 우주 연산망 구축. 다만 이는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한 최대 계획일 뿐 승인이나 실제 발사 계약이 확정된 물량은 아님. 스페이스X는 가장 유력한 발사 공급자인 동시에 자체 우주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잠재적 경쟁자. 스타클라우드가 저렴한 발사 서비스를 경쟁사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8월 26일 행정명령으로 외국인 전력장비 규제

- 8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DOE에 대량전력시스템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
-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는 외국인 장비를 제한하는 내용 포함
- 적용 대상 장비는 변압기, 배터리, 인버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품 등
- 적용 국가 범위는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거나 제재를 가한 국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국가
-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
- 미국은 이미 2026년부터 중국산 ESS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FEOC 규제를 통해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

네비우스의 사례, 온사이트 도입 논리는 납기에서 수용성으로 확대되는 중

- 2026년 5월 네비우스는 블룸에너지와 파트너십 체결, 왕복엔진을 연료전지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8:1로 승인
- 네비우스는 2026년 5월 파트너십 계약서에서 블룸에너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빠른 전력 확보와 사실상 무공해에 가까운 기술, AI 워크로드의 극한 성능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연소 없이 전기를 생성해 물 사용량이 최소화.
- 또한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연소 기반 발전 방식 대비 인허가 부담이 가벼워 부지 선정부터 가동까지의 일정을 단축시키므로 납기의 기준에서도 선순환이 가능.
- 여전한 주민 반발이 있지만 터빈과 왕복엔진 대비 상대적 우위로 결국 승인이 진행되었다고 판단
- 2025년 계통 연계 지연이 부각되며 ‘납기’의 관점에서 온사이트를 주목했다면 2026년에는 비용 전가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공해가 적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발전원으로서 온사이트 도입의 근거가 늘어나고 있어

원자력 업데이트

- 다수의 행정명령이 공개되었던 2025년 대비 2026년은 정책적 지원이 부족
- 올해 1월에도 우라늄 농축 관련 투자 정책 공개됐으나 구체적 규제는 부족
- 원자력 관련주는 밸류체인 내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며 우라늄>PP>SMR 순으로 선호
- 대표 SMR 관련주인 뉴스케일파워는 6GW TVA 계약 PPA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이 주가 하락의 대표 요인
- 최근 콜에서는 PPA 진전이 있으며 60여개 공급업체 중 30개 이상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언
- 건설 기간은 콘크리트 첫 타설부터 기계적 완공까지 일반적으로 40개월 미만 소요
- 상장을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7월 31일 SEC에 S-1을 제출하며 IPO 절차를 공식화했지만 비공개 제출로 공모 주식 수나 가격대는 미정이다. 카메코 49%, 브룩필드 51%의 지분 구조이며 상장일은 ‘26년 4분기~’27년 초로 예상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민,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민, 김시현)는 2026년 8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